

## 촘촘 납작한 책 — 『세밀화집, 허브』

나는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곤 무척 놀랐다. 역사에 남을 발견이라거나 남들은 못할 개념을 떠올렸기 때문 아니다.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 뇌를 통해 내 안에 던져지거나 입을 통해 세계에 내뿔어질 때, 그 자체로 놀랄 때가 있다. “아니 내가 이런 멋진 생각을 저장하는 브릴리언트-아카이빙-센터였을 줄이야?” 감동하고 넘어간다면 만사 부드럽고 안전한 삶이겠으나 절반의 불행과 절반의 다행으로 그렇지 않다. 단순히 그 생각이 나의 개인사를 자르고 지나가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한다. 그렇게 나의 시간을 앞뒤좌우가로세로 분절해주는 문장과 생각은 많을수록 좋다. 그때와 이때와 저때를 촘촘하게 구분하고 2011년의 내가 2002년의 나를 배신하다 1998년의 나에게 덜미 잡히는 장면을 만들어낸다. 일생을 들여 한 줄기로 단단히 굳어 온 돌산 같은 삶도 분명 그만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독 그 ‘거대한 덩어리로서의 일생’을 잘 견디지 못한다. 어릴 적 위인전 전질을 읽을 때마다 체하듯 가슴이 답답했던 것도 그 까닭이다. “하나의 확고한 이름이 되어라! 뜨거워라, 발명하라, 개척하라!” 외치는 위인의 방식은 압도적으로 훌륭해서 현기증이 난다. 실은 그저 주먹만한 수십 개의 무덤 옆에 앉아 있다. 어떤 무덤에는 1990년의 내가 죽어 있는데 그걸 되살리려 노력하는 (헛된) 주술사가 되기도 한다.

다시, 나는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다. 우주를 떠올려 볼 수도 있다. 마른 여름에 좁은 방안에 앉아 너른 우주를 생각해보는 일은 불운한 축복이다. 그때 나는 어느 운수 좋게 맑은 날 관찰한 밤하늘 예쁜 별자리에 대해 떠올리지 않는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태양계 밖의 행성, 블랙홀과 달의 뒷면 같은 것을 연상하는데, 이것은 그저 이미지로서의 이미지다. 어려서부터 자의와 타의로 흡수한 대중문화가 일러준 장면. 3D 안경을 착용하고 만져질듯 진짜처럼 체험한 모습. 내 안에 ‘총 맞은 것처럼’ 죽어 보관된 이미지들은 발신자는 또렷하지만 수신자는 누구여도 좋을 그런 것이다. 너무 많은 ‘처럼’이 내 안에 쌓여서 거대한 상상과 비유의 습지가 되었다. 꺾어보지 못한 것을 꺾은 것처럼 꺾는 바람에 꺾은 것을 꺾어보지 못한 것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차 하는 순간 확신에 찬 문장이 전복된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그때 이소영의 세밀화를 처음 봤다. 식물 하나를 그린 것이었는데, 보자마자 “납작하다”고 소리내어 말했다. 그 납작함은 다분히 이상하고 바로 이해할 수 없는 특질이었다. 모두가 앞다투어 외치는 ‘우리는 다채롭다, 여기는 풍성하다’ 구호 틈에서 바라본 그의 그림에는 몇가지 욕망이 없다. 식물의 색상을 화려하게 재현할 욕망, 화가로서의 화풍을 자랑할 욕망, 대상을 더 아름답게 포장할 욕망이 없다. 본래부터 없었을까. 그럴리가. 그는 야외 현장에서 건조 표본을 만들기 위해 채집한 식물에 종이와 나무판을 덧대 누른다. 그렇게 만들어진 표본을 정밀하게 관찰하면서 기름종이 위에 점을 술하게 찍어 한 장을 완성한다. 나무로 누르고 펜으로 누르는 과정을 통해 그림은 이중으로 납작해진다.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흔한 욕망을 눌러 없애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는 방식. 이소영이 그리는 세밀화는 대상에 분을 발라 과장하지 않고, 대상을 더 잘 인식하고, 구분하고, 이해하고, 연구하여 끝내 보존하는 방향으로 헌신한다. 오래된 대상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덧씌울 빈티지 필터가 아니라 그 오랜 시간을 바라볼 집념이 필요하다. 수백의 점으로 완성된 허브 세밀화는 그 집념과 닮아 있다. 나는 이 그림들을 ‘자연을 소재로 삼은 예술’이라 정의하지 않는다. 그보다 ‘예술을 도구로 쓴 과학’에 가까울 것이다. 마술의 순간은 그 다음이다. 과학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그려진 세밀화는 누구보다 유별난 예술임을 주창하는 예술보다 되려 예술적이다. 식물 그리고 허브는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고 무엇이든 (대리)경험할 수 있어서 고수(Coriander) 혹은 쑥(Mugwort)의 뿌리를 관찰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한 나의 우주는 과연 어떤 모양인가. 세계라고 착각한 그곳에 무엇을 채워넣었나. 지나치는 대상의 정체를 모르고 마시는 차를 ‘맛있는/없는’으로 이분할 때 평평해진 삶을 착시하기 위해 험거운 4D 영화를 찾게 되는 것 아닐까. 전 인류를 구하기 위해 오디션으로 뽑은 단 한 명의 영웅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오해를 버리고 앓아 이것도 라벤더 저것도 라벤더라고 얼버무렸던 존재를 최대한 꼼꼼히 구분할 때 나의 세계는 어떻게 흔들릴까. 들깨 그림으로 인해 들깨를 알아볼 수 있게 되면 이 평면은 어떤 입체로 나를 맞이할까. 흑과 백의 세밀화를 바라본 뒤 이 모든 질문과 호기심이 배어 나왔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는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다. 이번에는 어제 오후의 커피 한 잔을 만들어준 커피나무를 떠올리며 설명을 읽는다. “속명인 Coffea는 아라비아어 ‘힘, 생활력(Coffa)’에서 유래하며 열매에는 카페인 성분이 있다. 초기에는 성숙한 열매의 씨앗을 발효, 건조한 원두를 술로 만들어 먹었지만 13세기 이후부터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용하고 있다.”<sup>1</sup> 세밀화가 이소영이 파고든 납작한 점의 시간, 그 묶음의 힘(Coffa)으로 나는 또 얼마간 버틸 수 있다.

1 『세밀화집, 허브』, 이소영,  
유어마인드, 2014, 62페이지

